

2026년 1월 19일 배포

보도시기: '26.1.19.(월) 14:00

총 2쪽(붙임: -)

- 세미나 개시 이후 -

<문의> 유도진 대변인 : 010-6260-7777 / 국민석 사무국장 : 010-6314-1273

## 전작권 9·19 군사합의 군 정보기관 개편까지...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2026년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정책 추진과제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 국회에서 '2026년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정책 추진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국방안보정책의 핵심 추진과제를 '튼튼, 첨단, 효율, 명예'라는 4대 키워드로 정리하고, 2026년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김병주 국회의원의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논의를 열었다. 김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 구조적 여건 속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군대, 국민이 존중하는 군대'라는 비전 아래 국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튼튼한 동맹 기반 위에서 첨단전력과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군의 명예와 중립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진행됐고,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백군기, 김도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세미나 개최 취지와 향후 과제 도출 방향을 제시했다. 공동위원장단은 국방개혁 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 가능한 과제로 정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와 당 정책 논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서남열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맡아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정한범 국방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국방정책의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형 국방, 첨단 과학기술 주도의 한국형 강군, 국민과 함께하는 민군통합형 국방이라는 큰 틀에서 2026년 국방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동맹 기반의 전평시 작전 수행 역량 강화, 미래전장에 맞춘 지휘구조 조정과 전력 전환, 선택과 집중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제도적 신뢰 회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전 국방홍보원장),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예비역 육군 준장),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도진 극동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은 발제 내용을 토대로 각 토론자가 맡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는 구성으로 진행됐다. 박창식 소장은 보훈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장병 사기,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고, 조용근 장군은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 긴장관리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끌었다. 전예현 부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으며, 유도진 교수는 군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방첩 조직 개편의 후속 이행과제에 대해 제도적 설계와 실행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과 제안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폭넓게 공유했다. 김도균 공동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2026년 실행과제로 구체화해 당 지도부와 정책 라인에 전달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안보 정책을 위한 후속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